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우리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

- 시편 119:133 -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6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찬양: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렸던 욕망의 더께를 벗겨 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막았던 아집과 통념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세워질 파송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마케도니아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믿음 가운데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 32:5 인도자
- ▲ 교 독 문 12. 시 19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권혁순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454. 주와 같이 되기를 다 함께
- ▲ 성경봉독 요 7:45~52 1부:인도자/2부:김해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합 께

찬 양	I. 내가 예수 믿고서	마중물 찬양대
	II.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청과 찬양대
말 씬	확신이 때론 덧이 된다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낡은 관습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지, 자 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감정에 휩싸여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바른길을 분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앞장서셨습 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걸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 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욕망을 비우고, 이웃의 목소리를 들겠습니 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 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이재훈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이재훈	안종일	송해수	이범석
헌금 계좌	9002-1751-3375-3	(십일조/월정현금)	십일조/월정/주일, 기타	
	9002-2003-2892-7	(감사헌금)	감사/생일감사/추수감사/00감사	
	9002-1358-4805-8	(장학금)	청과장학회, 교회 교육·도서관	
	9002-2030-8023-7	(선교헌금)	선교, 교회 파송·개척	
	9002-2032-2714-0	(구제/녹색꿈헌금)	구제/긴급구호/녹색꿈/00지원	

